



농림축산식품부

## 보도자료

2016년 12월 14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식량정책과 전한영 과장, 장 미 사무관(044-201-1820) / 제공일 : 12월 13일(총 2매)

### 농식품부, 2017년 사료용 쌀 공급 52만톤으로 확대 - 내년 1월부터 시장격리 쌀 등을 사료용으로 공급 정부재고 쌀 조기 감축 -

#### 《 주 요 내 용 》

- ◆ 정부 쌀 재고를 조기에 감축하고 쌀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내년 사료용 공급물량 확대
  - 공급물량은 '13년산 재고 쌀과 '14년산 시장격리 쌀 등 총 52만톤(현미 기준)으로, 올해(10.1만톤) 보다 5배 이상 증가된 수준

-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쌀 재고를 조기에 감축하기 위해 내년에 정부 쌀 52만톤(현미 기준)을 사료용으로 처분할 계획이다.
- 내년에 사료용으로 처분할 52만톤은 2013년산 재고 쌀(현미 25만톤)과 2014년산 시장격리 쌀\* 전량(현미 27만톤)으로, 올해 사료용으로 공급한 물량(10.1만톤) 보다 5배 이상 증가된 수준이다.
  - \* '14년 수확기에 쌀이 신곡 수요량보다 많이 생산됨에 따라 정부가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을 매입하여 비축하고 있는 쌀
- 이번 사료용 공급은, 현재 쌀 생산량 중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 전량(29만9천톤)을 시장격리하였음에도 정부쌀 재고 과잉이 쌀값 하락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제기됨에 따라 쌀 시장의 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.

○ 재고 쌀 52만톤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면 재고 관리비용 절감, 사료원료곡물 수입대체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약 1,162억원\*의 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.

\* 기대효과 1,162억원 : 재고 관리비용 절감(551억원, 1년 기준) + 사료곡물 수입대체 (1,079억원, 옥수수 기준) + 주정용 대신 사료용으로 공급시 판매손실(△468억원)

○ 내년에 사료용으로 공급하는 정부관리양곡은 부정유통 방지 등의 사후관리를 위해 올해와 마찬가지로 배합사료 제조업체에 공급하고, 판매가격은 최근 1년간 옥수수 수입단가와 쌀의 옥수수 대비 사료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208원/kg(현미 기준)에 판매할 예정이다.

□ 한편, 12월5일자 산지쌀값은 128,328원/80kg으로 전회(11월25일) 대비 0.1% 하락한 수준이며, 신곡 가격 조사가 시작된 지난 10월5일 이후 전회 대비 하락률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.

\* 산지쌀값 전회 대비 증감율 : (10.15.)△1.7% → (11.5.)△0.2 → (11.25.)△0.3 → (12.5.)△0.1

□ 농식품부 관계자는 “시장에서 쌀 물량 부족에 따른 수급불안과 가격 급등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시장격리 물량은 밥쌀용으로 시장에 방출하지 않을 것”임을 재차 당부하였다.